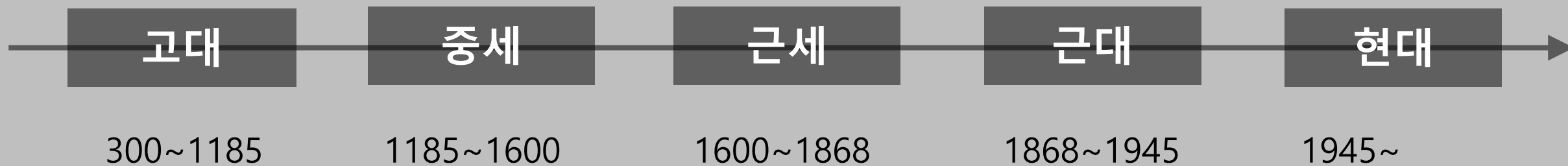


10. 근대 천황제 국민국가의 탄생

부산대학교 2024년 여름계절수업 <일본의 역사와 문화>

조 승 미

일본사 연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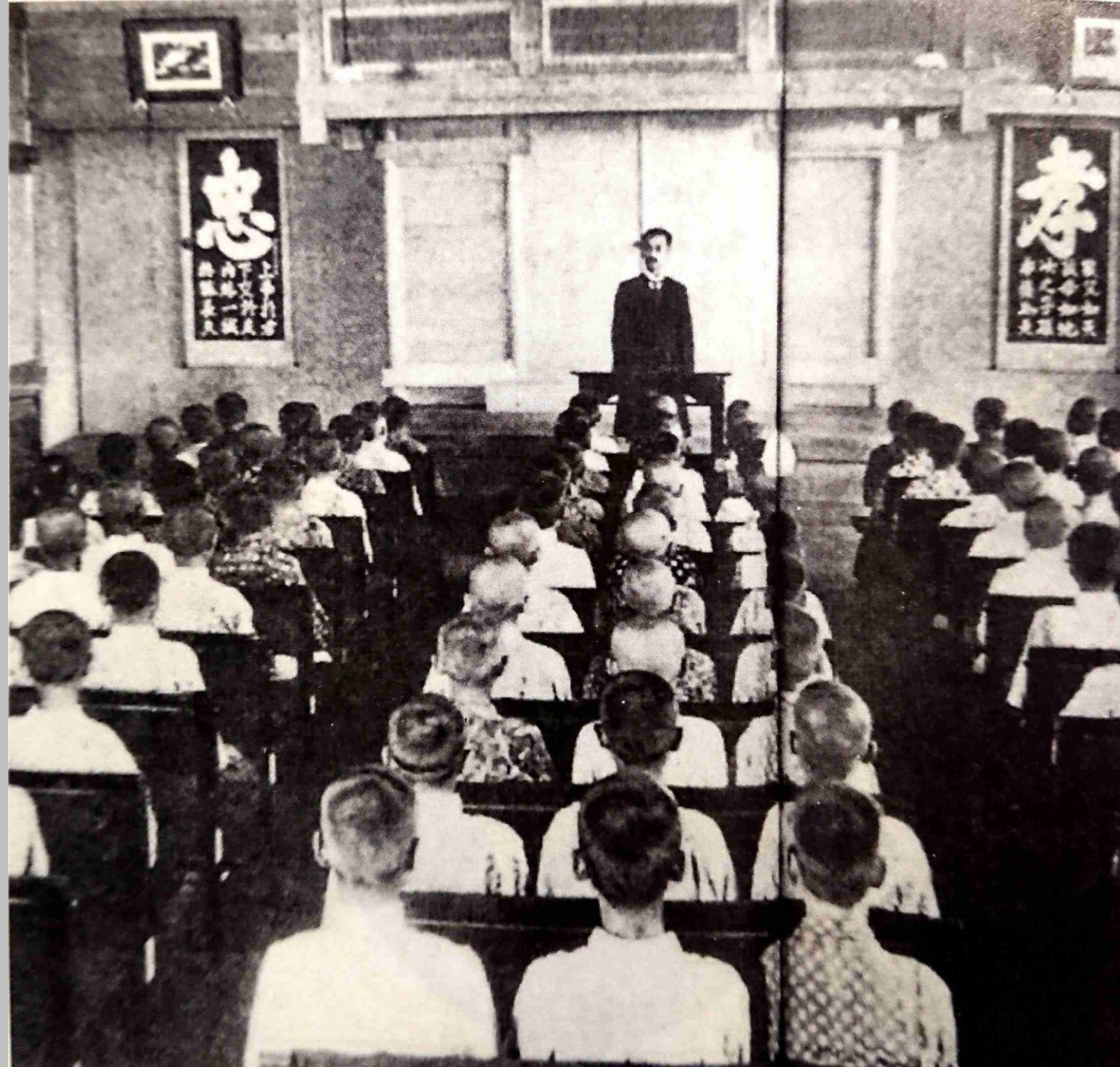
- 천황 숭배 교육
- 국가신도(國家神道)의 탄생
- 종교 탄압

■ 국민 교육

- 서양 열강을 따라잡기 위한 급선무 중 하나는 백성들을 애국심을 갖춘 '국민'으로 만드는 것
- 정부 주도의 의무교육 장려
: 20C 초 진학률 95% 달성
- 유교주의적 특색
: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효(忠孝) 강조
- <교육칙어>1890

“짐이 생각건대 우리 황조황종께서 나라를 시작하시고 널리 덕을 세우심이 중후하도다. 우리 신민들이 충의를 두텁게 하고 효도를 하며 억조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그 세대 세대마다 미덕을 행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본질이자 뛰어난 점이며 교육의 근본이며 핵심 부분이다...”

<교육칙어>



“고대 일본에서는 천황이 직접 군대를 통솔했다. 그 후 태평세월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 조정의 무용은 쇠퇴하고 병과 농이 저절로 분리되어…병마권은 쇼군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약 7백년에 걸쳐 황족의 의사는 무시되고 무사가 정치의 대권을 움켜쥔 채 나라를 지배해 왔다…막부의 위세는 급속하게 쇠퇴해 갔다. 때를 같이해 서양 열강이 일본에 위협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메이지 천황의 조부 닌코 천황과 고메이 천황의 마음을 괴롭혔다. 메이지 천황은 그래도 운이 좋았다. 젊고 미숙한 나이에 황위에 올랐으나 유능한 충신들이 천황을 보좌한 덕에 고대의 천황 통치 제도로 복귀할 수 있었다. 지난 15년 사이에 대변혁이 일어나 육·해군은 이제 천황의 통솔 하에 있게 되었다…짐은 그대들 군인의 대원수다. 그러니 짐은 그대들을 팔다리로 의지하고 그대들은 짐을 머리로 여기는 끊으려야 끊어질 수 없는 사이다. 짐이 국가를 보호해서 하늘의 은총에 보답하고 조상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그대들 군인이 직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군인칙유(軍人勅諭)>1882

일본인은 '종교'가 없다?

역사적 경험이 일본인이 종교를 종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었다

신도(神道)

- 일본의 토착 신앙이자 전통 종교
- 고대 일본인의 물활론(物活論)적 믿음 바탕
- 선악과 개인 윤리에 관한 교의 부재
- 신불습합(神佛習合)
 - 신도가 불교를 받아들여 종교로서 체계화되는 현상
 -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 “부처와 가미는 한 몸이다”
- 신도에 의해 종교적 권위를 부여받은 천황
 - : 신도의 최고신 태양의 여신의 자손

“가미(神)란 진귀하고 심상치 않게 뛰어난 덕을 지닌
두려운 존재”

“악하고 기괴한 것이라 할지라도 뛰어나고 두려운 것
이면 무엇이든 가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하라이(祓い)





식년천궁(式年遷宮)





근대 일본에서 천황은 어떻게 '신(神)'이 되어 갔는가?

존재하지 않았던 권위를 빠르게 쌓아 올리는 방법은 신격화였다

천황 중심의 국가 건설

- 일본을 하나로 묶는 결속의 상징이자 정권의 기반인 천황
- 메이지 정부의 지도층은 잊혀졌던 천황의 존재를 재부각
← 천황은 메이지 정부의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권위의 대상
- 천황의 이미지를 민중에 침투시키기 위한 작업
 -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 채택
 - 불경죄(不敬罪) 제정
 - 기원절(紀元節 = 건국기념일 2.11)의 제정
 - 천황의 전국 순행(巡幸)

武州六郷船渡圖



寛文十一年

明治元年、武蔵六郷川船渡御の圖

觀兵式御幸圖



井上探原





I 국가신도(國家神道)의 탄생

- 천황 = 최고의 정치권력을 가진 살아있는 신
- 신도의 국교화(國敎化)
 - 천황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종교로서 장려
 - 전국의 신사를 국가 기관으로 지정
- 신불(神佛) 분리령 1868
 - 폐불훼석(廢佛毀釋) 운동
- 제교(祭敎) 분리를 통한 신도의 초(超)종교화
 - : "신도는 단순한 종교와 다르다"
- 국민에게 강제된 신사(神社) 참배 의무





朝鮮神宮奉贊殿



종교 탄압

- 가쿠레 기리시탄(隠れキリシタン)
- 메이지 정부 역시 에도 막부의 정책 계승
: 우라카미(浦上) 신자 탄압 사건 1871
- 서양 제국들의 항의로 기독교 금지 철폐 1873
- 기독교와 국가주의의 충돌
: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사건 1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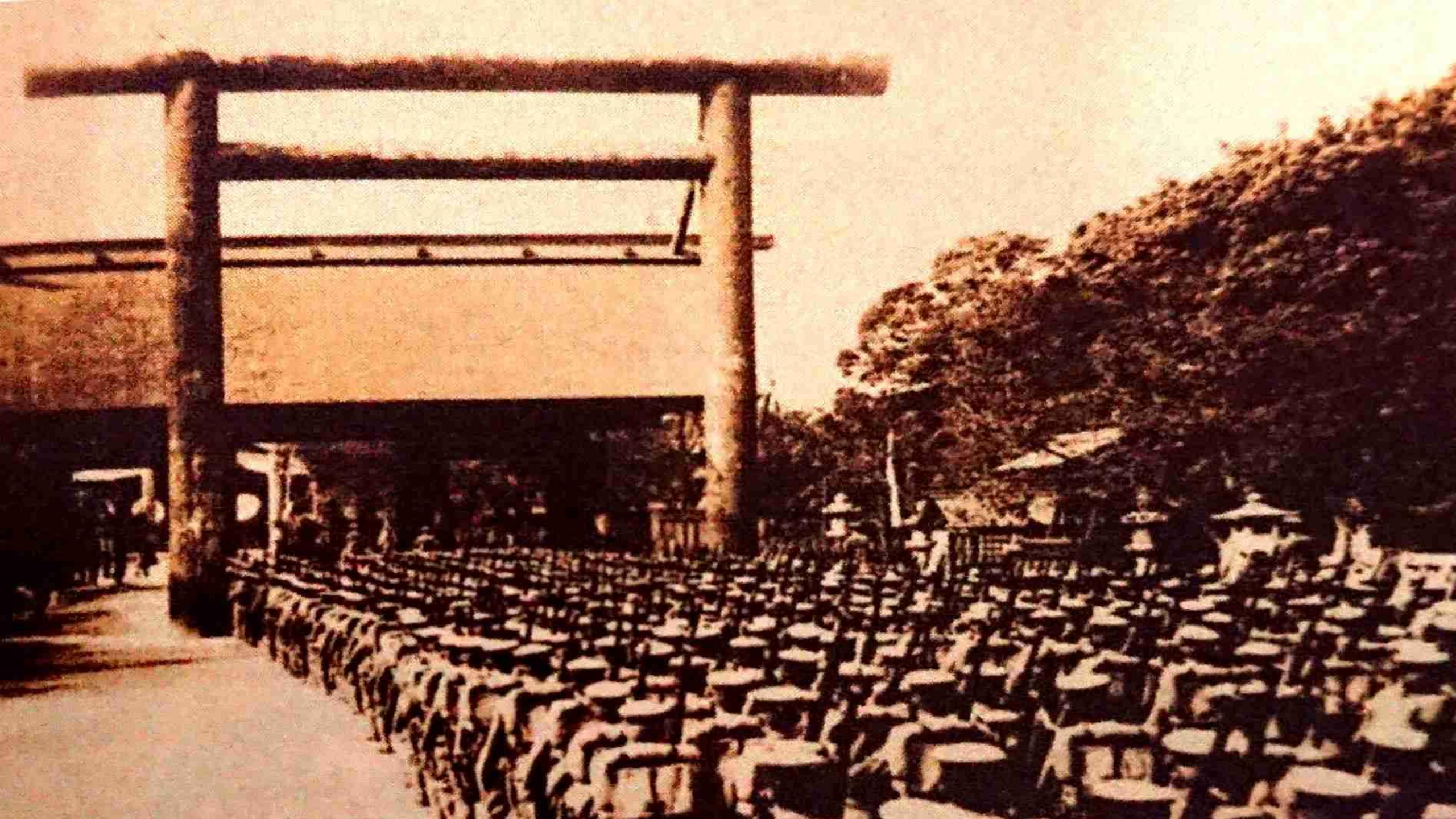
朕惟つ。我々皇祖皇宗國ヲ肇ムルコト
 宏遠。徳ヲ樹ツルコト深厚ナリ我々臣
 民先ツ志ヲ先ツ孝ヲ使死セザルコト
 世々厥ノ美ヲ傳セムハ誠ニ我々國體ノ
 精華ニシテ教育ノ淵源亦實ニ此ニ存ス
 爾臣民父母ニ孝ニ兄弟ニ友ニ夫婦相和
 シ朋友相信シ恭儉己レテ持シ恭儉
 及ムレ學ヲ修メ業ヲ習ヒ以テ智能ヲ啓
 發シ徳智ヲ成就シ進テ公益ヲ肩メ世務
 ヲ聞メ常ニ國憲ヲ重シ國法ヲ遵ヒ一旦
 釐亂アレハ義勇公ニ奉レ以テ天壤無窮
 ノ皇運ヲ扶翼スヘシ是ノ如クハ獨リ朕
 カ忠良ノ臣民タルノミナラス又以テ爾
 祖先ノ遺風ヲ顯彰スルニ足ラシ
 斯ノ道ハ實ニ我々皇祖皇宗ノ遺訓ニレ
 タリ爾臣民ノ俱ニ遵守スヘキ所ニテ古
 今ニ通シテ替ハス之ヲ中外ニ施シテ傳
 テス朕爾臣民ト俱ニ奉承服膺シテ成其
 徳ヲ一ニセンコトヲ庶幾ツ

明治二十五年十月三十一日

御名 御璽

I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 내전으로 사망한 병사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 창건된 초혼사(招魂社)1869
→ 야스쿠니 신사로 개칭1879
- 일본군 소관의 신사로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국가 종교 시설
- 천황을 숭배하고 군국주의를 보급하는 역할
 - 제사 때는 천황이 직접 참배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육적 효과
 - 침략 전쟁의 정당화
- 식민지 출신 강제 노역자의 합사(合祀) 문제
- [유슈칸\(遊就館\)](#)1882







啓照館

19

招魂斎庭

23

靖国会館

22

靖国偕行文庫



参拜者
休憩所

24

母の像

25

26

27

パール博士
顕彰碑

戦没馬慰霊像・
鳩魂塔・軍犬慰霊像

遊就館入口

28

遊就館

29

茶寮
「結(ゆい)」

30

売店

北門

31



14

到着殿

13

参集殿

40

靖国の桜

12

能楽堂

1

本殿

3

拜殿

6

中門鳥居

5

鎮霊社 元宮

7

南門

8

斎館・社務所

朱印所

正式参拝入口

国神社南門

akuni Jinja South Gate

靖国通



감사합니다